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36-2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 결혼인식조사] 미혼자의 결혼 의향,
기혼자의 결혼 만족도, 혼인건수 변화 인식

2025. 6. 25.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미혼 남녀의 결혼 의향

현재 미혼인 사람 중 향후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은 44%, 의향 없는 사람은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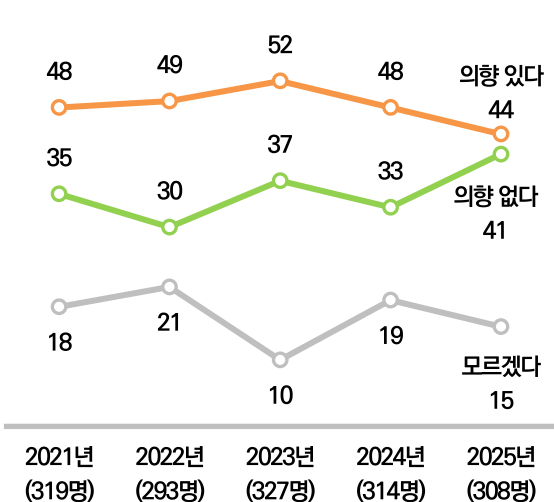
현재 이혼·사별 남녀 중 새혼(재혼) 의향이 있는 사람 16%, 없는 사람은 79%

현재 미혼인 사람 308명 중 향후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은 44%이며, 결혼 의향이 없다고 밝힌 사람은 41%이다. 결혼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023년 대비 8%포인트, 2024년 대비 4%포인트 감소하였고, 반대로 결혼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2023년 대비 4%포인트, 2024년 대비 8%포인트 늘었다. 30세 이하에서는 향후 결혼 의향이 있다는 사람이 52%로 절반을 조금 넘지만, 40세 이상에서는 결혼 의향이 없는 사람이 61%로 과반을 차지한다.

현재 이혼·사별 상태인 남녀 117명의 새혼(재혼) 의향은 16%이며, 79%는 향후 새혼(재혼)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2021년 이후 새혼(재혼) 의향이 있다는 사람은 13~20% 수준, 없다는 사람은 69~7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미혼인 사람 중 향후 결혼 의향이 있는 사람은 44%, 의향 없는 사람은 41%

(단위 : %)



25년 조사결과	사례수 (명)	의향 있다	의향 없다	모르겠다
미혼 전체	(308)	44	41	15
성별				
남자	(161)	49	36	15
여자	(146)	39	47	14
연령				
18-29세	(151)	52	31	17
30대	(75)	52	41	6
40세 이상	(82)	21	61	18
성별x연령				
남자_18-39세	(122)	56	32	12
여자_18-39세	(104)	49	37	14
남자_40세 이상	(39)	27	48	25
여자_40세 이상	(42)	15	73	12

질문: 앞으로 결혼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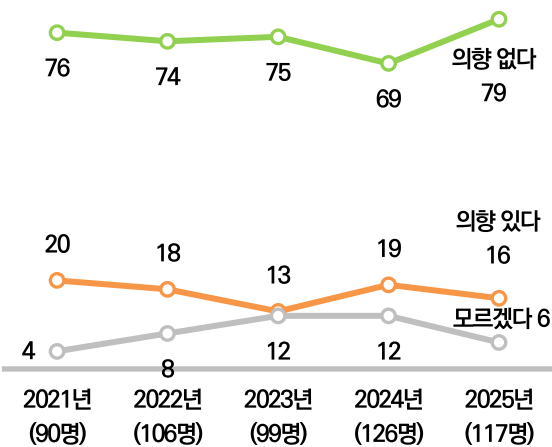
응답자 수: 미혼 응답자 293명 ~ 327명

비고: 의향 있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의향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제시

조사기간: 2025. 3. 21. ~ 24.

현재 이혼·사별 남녀 중 재혼(재혼) 의향이 있는 사람 16%, 없는 사람은 79%

(단위 : %)



25년 조사결과	사례수 (명)	의향 있다	의향 없다	모르겠다
이혼·사별 전체	(117)	16	79	6
성별				
남자	(38)	29	63	8
여자	(79)	9	86	5
연령				
59세 이하	(45)	22	66	11
60세 이상	(72)	11	86	2

질문: 앞으로 재혼을 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이혼·사별 상태인 응답자 90명 ~ 126명

비고: 의향 있다(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 의향 없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은 편이다) 응답 제시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on.co.kr)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45%,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나서’ 41%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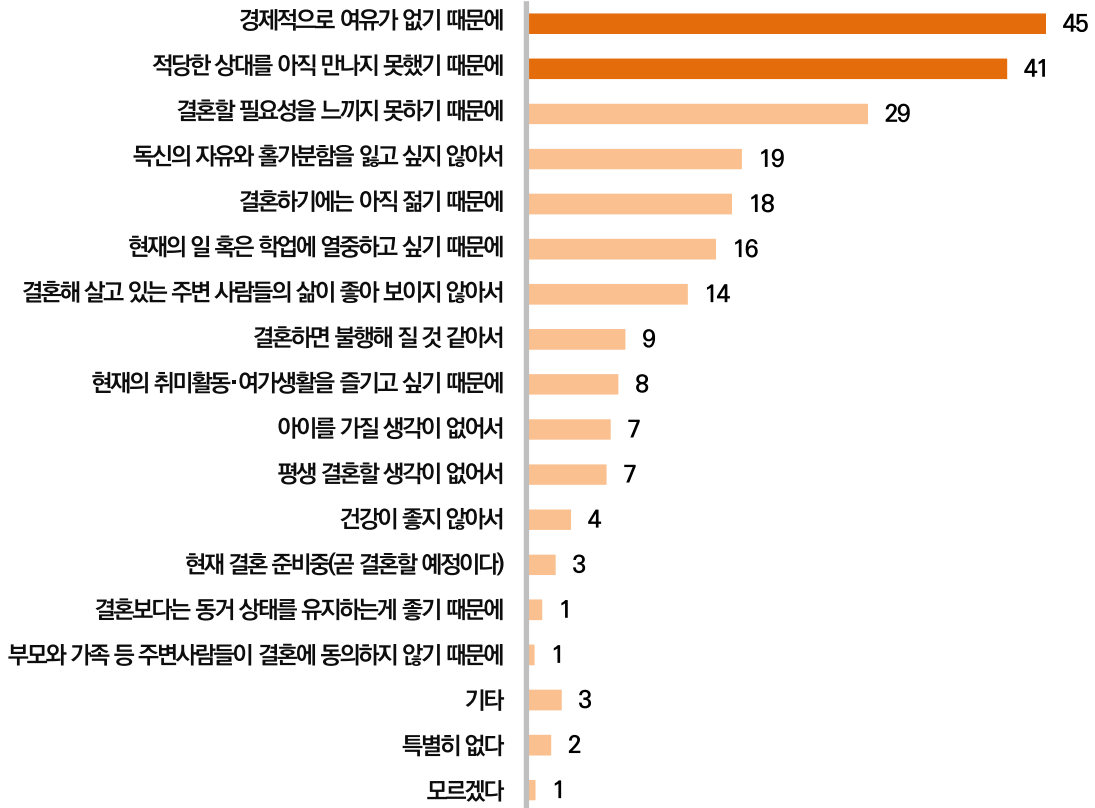
현재 미혼인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45%)과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41%)을 주로 언급했다. 아직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29%), 독신의 자유와 휴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19%), 결혼하기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18%), 현재의 일 혹은 학업에 열중하고 싶기 때문에(16%), 결혼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14%) 등이 뒤를 잇는다. 비혼 사유는 지난해와 큰 변화는 없다.

다만, 남녀별 차이는 뚜렷하다. 미혼 남성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점(58%), 그리고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는 점(44%) 두 가지가 결혼을 하지 않은 주된 이유이다. 남성은 결혼을 위한 경제적 준비에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이 드러난다. 반면 미혼 여성의 사유는 좀 더 다양하다.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는 것이 가장 주된 이유(39%)이기는 하나,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33%),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30%), 결혼하기에는 아직 젊어서(21%), 독신의 자유와 휴가분함을 잃고 싶지 않아서(19%), 현재의 일 혹은 학업에 열중하고 싶어서(19%) 등도 결혼을 하지 않은 주요 이유이다. 여성은 경제적 준비에 대한 부담은 남성보다 덜한 반면, 결혼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이 남성보다 더 강한 편이다.

18~29세에서는 ‘결혼하기에 아직 젊어서(36%)’가 결혼을 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로 언급된다. 40세 이상에서는 ‘결혼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22%)’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많이 언급된다.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45%, '적당한 상대를 못 만나서' 41%

(단위 : %)



질문: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미혼 응답자 308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남성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경제적 여유 부족'과 '적당한 상대 아직 못 만나서' 여성의 이유는 좀 더 다양... 결혼 필요성 못 느끼고 결혼하기에 아직 젊다는 것도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경제적 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적당한 상대를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독신의 자유와 즐거움을 잃고 싶지 않아서	결혼 하기에는 아직 젊기 때문에	현재의 일 혹은 학업에 열중하고 싶기 때문에	결혼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삶이 좋아 보이지 않아서	결혼하면 불행해 질 것 같아서	현재의 취미활동 ·여가 생활을 즐기고 싶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어서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미혼 전체 (308)	45	41	29	19	18	16	14	9	8	7	7
성별											
남자 (161)	58	44	27	18	15	14	13	7	5	6	2
여자 (146)	30	39	33	19	21	19	15	11	11	9	12
연령											
18~29세 (151)	43	35	27	15	36	27	9	10	6	7	7
30대 (75)	53	51	37	23	1	7	15	8	9	11	6
40세 이상 (82)	41	45	27	23	0	6	22	5	11	4	8
성별x연령											
남자_18~39세 (122)	57	42	28	18	20	18	11	8	5	7	2
여자_18~39세 (104)	33	38	34	16	29	22	11	12	9	10	12
남자_40세 이상 (39)	61	49	24	18	0	3	21	4	5	3	5
여자_40세 이상 (42)	23	41	29	28	0	10	23	7	17	5	12
향후 결혼 의향											
있음 (136)	45	48	14	10	28	19	11	5	8	3	1
없음 (127)	45	34	45	28	7	11	16	14	9	13	14
모름 (45)	44	44	32	19	18	25	18	3	7	5	5

질문: 현재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전체 응답 기준 상위 11개 항목만 제시

응답자 수: 미혼 응답자 308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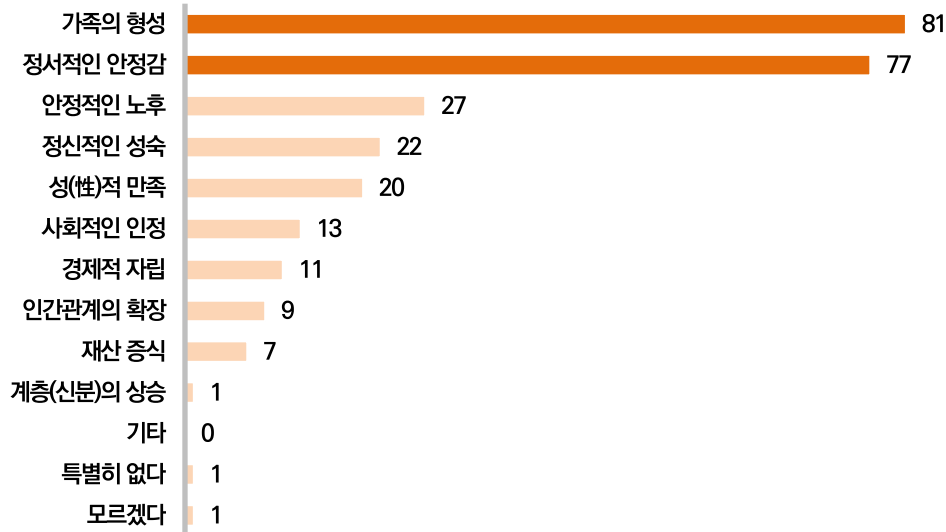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향후 결혼 혹은 새혼(재혼) 의향 있는 사람, 남녀, 세대 불문 결혼을 통해 '가족 형성'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장 기대

결혼 혹은 새혼(재혼) 의향이 있는 154명이 결혼을 통해 가장 기대하는 점은 가족의 형성(81%)과 정서적인 안정감(77%)이다. 이는 성별이나 세대와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점이다. 이외에 안정적인 노후(27%), 정신적인 성숙(22%), 성(性)적 만족(20%) 등에 대한 기대가 뒤를 잇지만, 격차는 제법 크다.

향후 결혼 혹은 새혼(재혼) 의향 있는 사람,
남녀, 세대 불문 결혼을 통해 ‘가족 형성’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장 기대

(단위 : %)



결혼 혹은 새혼(재혼) 의향 있음	사례수 (명)	가족의 형성	정서적인 안정감	안정적인 노후	정신적인 성숙	성(性)적 만족	사회적인 인정	경제적 자립	인간관계의 확장	재산 증식	계층(신분)의 상승	기타	특별히 없다	모르겠다
전체	(154)	81	77	27	22	20	13	11	9	7	1	0	1	1
성별														
남자	(90)	83	78	20	22	28	12	11	9	5	1	0	0	2
여자	(64)	77	77	37	23	8	14	13	9	8	0	1	3	0
연령														
18~39세	(121)	86	80	22	20	18	12	12	8	8	1	0	2	1
40세 이상	(32)	58	69	46	32	27	18	10	15	3	0	0	0	0

질문: 결혼을 통해 기대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최대 3개까지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결혼 혹은 새혼(재혼) 의향 있는 154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58%, 그렇지 않다 36%

30대 이하, 미혼 응답자는 과반이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반면
50세 이상, 기혼 응답자는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을 가장 기대하면서도, 아이러니하게도 결혼 후 출산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진술에 58%가 동의하고, 36%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는 지난해와 큰 차이 없는 결과이며, 2021년 이후 동의하는 사람은 52~59% 수준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36~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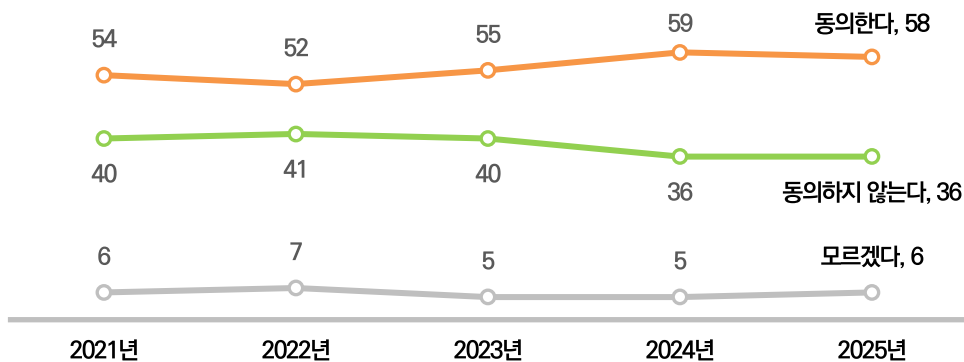
하지만 혼인 유무에 따른 차이는 크다. 미혼 남녀만 놓고 보면 56%는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기혼 남녀(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68%), 사별·이혼 남녀(74%) 중 다수가 결혼 후 출산에 동의하는 것과는 다른 인식이다. 특히 20대 여성(76%), 30대 여성(65%), 40대 여성(61%)은 과반이 결혼 후 의무적으로 아이를 갖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해, 동년배 남성의 인식과는 정 반대이다. 50대 이후에는 남녀 관계없이 결혼 후 아이를 갖는 것에 다수가 동의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출산과 육아를 직접 경험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여성일수록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58%, 그렇지 않다 36%

결혼 후 가족 형성을 가장 기대하면서도, 일부는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 부담도 느껴

(단위 : %)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질문: 결혼과 관련한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응답자 수: 1,000명

비고: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을 제시함.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50세 이상, 기혼 응답자, 자녀가 있는 사람은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지만 30대 이하, 미혼 응답자는 과반이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아

(단위 : %)

2025년 조사	사례수 (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2025년 조사	사례수 (명)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모르겠다
전체	(1,000)	58	36	6	전체	(1,000)	58	36	6
성별					성별 x 연령				
남자	(493)	64	29	7	남자_18-29세	(81)	36	48	15
여자	(507)	52	43	5	여자_18-29세	(74)	14	76	10
연령					남자_30대	(77)	55	43	2
18-29세	(155)	26	62	13	여자_30대	(72)	29	65	6
30대	(149)	43	54	4	남자_40대	(88)	61	30	9
40대	(175)	49	46	6	여자_40대	(87)	36	61	2
50대	(195)	64	29	7	남자_50대	(98)	66	25	9
60대	(177)	80	16	4	여자_50대	(97)	62	32	6
70세 이상	(149)	85	14	1	남자_60대	(87)	81	13	6
혼인여부					여자_60대	(90)	79	19	3
미혼	(308)	35	56	10	남자_70세 이상	(62)	89	11	0
배우자 있음	(575)	68	28	5	여자_70세 이상	(87)	82	16	2
사별, 이혼	(117)	74	25	2					
자녀유무									
있음	(626)	70	26	4					
없음	(374)	38	53	9					

질문: 결혼과 관련한 다음 각각의 내용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 결혼한다면, 아이를 가져야 한다

응답자 수: 1,000명

비고: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동의하는 편이다),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응답을 제시함.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결혼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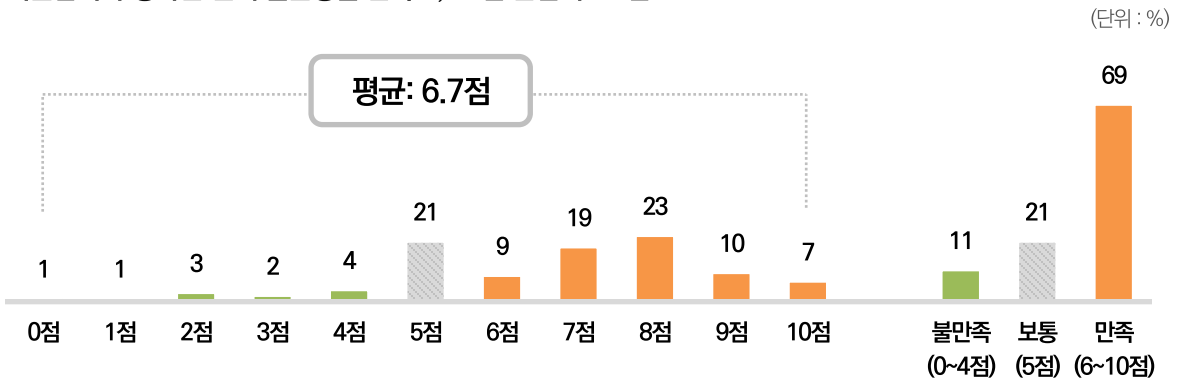
기혼 남녀가 평가한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 10점 만점에 6.7점 40대부터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 대비 1점 이상 낮아

기혼 남녀 575명이 평가한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 평균점수는 10점 만점에 6.7점이다. 구체적으로, 69%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하며(6~10점), 21%는 보통(5점), 11%는 불만족한다(0~4점). 2022년 첫 조사를 시작한 이후, 결혼생활 만족도 점수는 6.6점~6.8점 사이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성별이나 소득, 혼인기간 등에 따라 결혼생활 만족도 차이도 이전과 동일하다. 기혼 남성의 결혼생활 만족도(7.3점)이 여성(6.1점)보다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결혼 초반이라고 할 수 있는 30대까지는 남성(7.6점)과 여성(7.2점) 모두 만족도가 7점 이상으로 높고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40세가 넘어서부터는 남성의 결혼생활 만족도가 7점 이상으로 유지되는 반면(40대 남성 7.4점, 50대 남성 7.1점, 60대 남성 7.0점, 70세 이상 여성 7.3점), 여성의 만족도는 6점대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진다(40대 여성 6.1점, 50대 여성 6.0점, 60대 여성 6.0점, 70세 이상 여성 5.5점). 그 결과, 남녀 간 만족도 차이가 1점 이상 벌어진다.

월평균 가구소득과 혼인기간에 따른 차이도 확인된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7.0점으로,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인 사람의 만족도(6.3점)보다 높다. 결혼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7.7점으로 높지만, 이후 혼인기간이 늘어날수록 만족도 또한 다소 떨어지는 것이 확인된다.

기혼남녀가 평가한 현재 결혼생활 만족도, 10점 만점에 6.7점



질문: 현재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응답자 수: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575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2년 이후 결혼생활 만족도 변화 추이(‘만족한다’ 응답, 만족도 평균)

남성이 여성보다, 혼인기간 낮을수록, 소득 높을수록 결혼생활 더 만족하는 경향 유지

		결혼생활 만족 (만족도 점수 6~10점, %)				만족도 점수 평균 (점, 10점 만점)			
		'22년	'23년	'24년	'25년	'22년	'23년	'24년	'25년
전체		68	67	69	69	6.7	6.6	6.8	6.7
성별	남자	78	75	78	79	7.3	7.0	7.3	7.3
	여자	58	58	60	59	6.2	6.1	6.3	6.1
연령	18~39세	75	80	74	80	7.4	7.2	7.0	7.4
	40대	69	67	67	73	6.7	6.6	6.6	6.8
	50대	72	67	69	65	6.8	6.6	6.8	6.6
	60세 이상	62	63	-	-	6.4	6.3	-	-
	60대	-	-	67	66	-	-	6.9	6.5
	70세 이상	-	-	68	64	-	-	6.9	6.4
성별x연령	남자_18~39세	87	84	79	88	8.0	7.2	7.1	7.6
	여자_18~39세	67	77	70	73	7.0	7.2	7.0	7.2
	남자_40대	73	79	68	80	7.0	7.1	6.8	7.4
	여자_40대	66	55	66	65	6.4	6.1	6.5	6.1
	남자_50대	76	68	77	72	7.2	7.0	7.3	7.1
	여자_50대	68	66	61	57	6.4	6.3	6.3	6.0
	남자_60세 이상	81	75	-	-	7.3	7.0	-	-
	여자_60세 이상	44	49	-	-	5.6	5.6	-	-
	남자_60대	-	-	83	74	-	-	7.7	7.0
	여자_60대	-	-	53	58	-	-	6.1	6.0
	남자_70세 이상	-	-	84	85	-	-	7.7	7.3
	여자_70세 이상	-	-	52	44	-	-	6.0	5.5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57	63	56	58	6.5	6.3	6.4	6.3
	300~600만원	68	66	69	69	6.7	6.7	6.8	6.7
	600만원 이상	75	71	76	76	7.2	6.9	7.2	7.0
혼인 기간	5년 미만	80	-	82	87	7.8	-	7.6	7.7
	5~9년	76	-	69	74	7.3	-	6.8	6.9
	10~19년	67	-	66	73	6.5	-	6.7	6.9
	20~29년	73	-	71	64	6.8	-	6.8	6.5
	30년 이상	62	-	67	66	6.5	-	6.8	6.5

질문: 현재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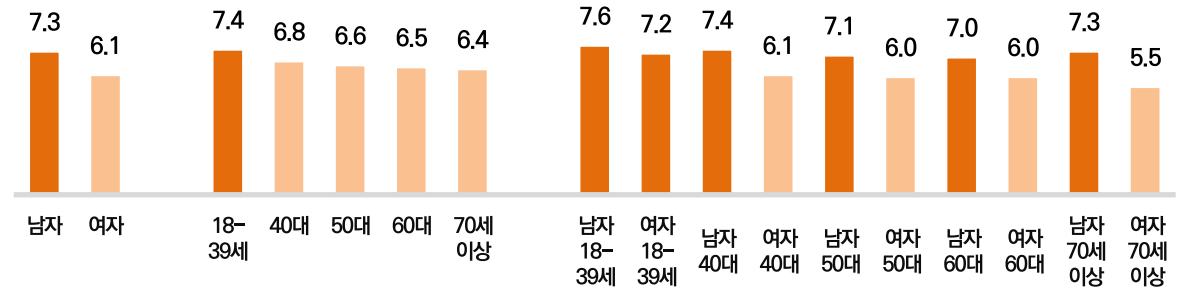
비고: 2024년부터 60세 이상을 60대와 70세 이상으로 세분화해서 조사

2023년에는 혼인 기간을 묻는 질문 하지 않음

응답자 수: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560~6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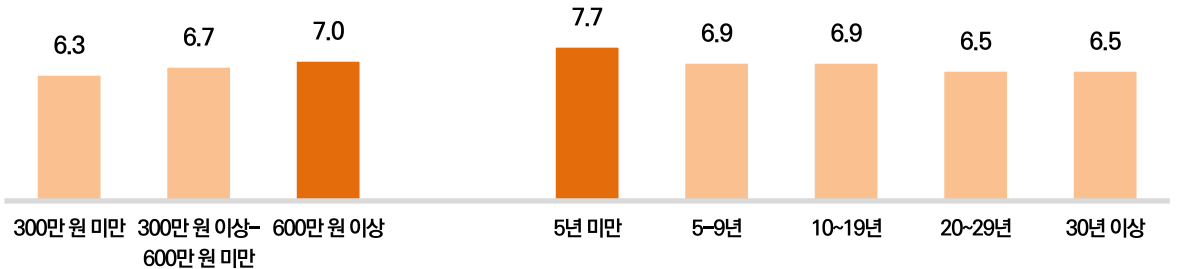
30대 이하에서는 남녀 모두 결혼생활 만족도 높지만, 40대부터는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 대비 1점 이상 낮아
가구소득 높을수록, 혼인기간 짧을 수록 결혼생활 만족도 높은 경향은 지속

(단위 : 점)



월평균 가구소득

혼인 기간



질문: 현재의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응답자 수: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575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28%, 다른 사람과 결혼 32%,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사람도 26% 기혼 남성 중 39%는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기혼 여성은 38%가 '결혼 안 하고 싶다'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28%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지금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은 32%로 지난해(33%)와 비슷하고,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싶다는 사람은 26%로 지난해 대비 4%포인트 높다.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두 배 이상 많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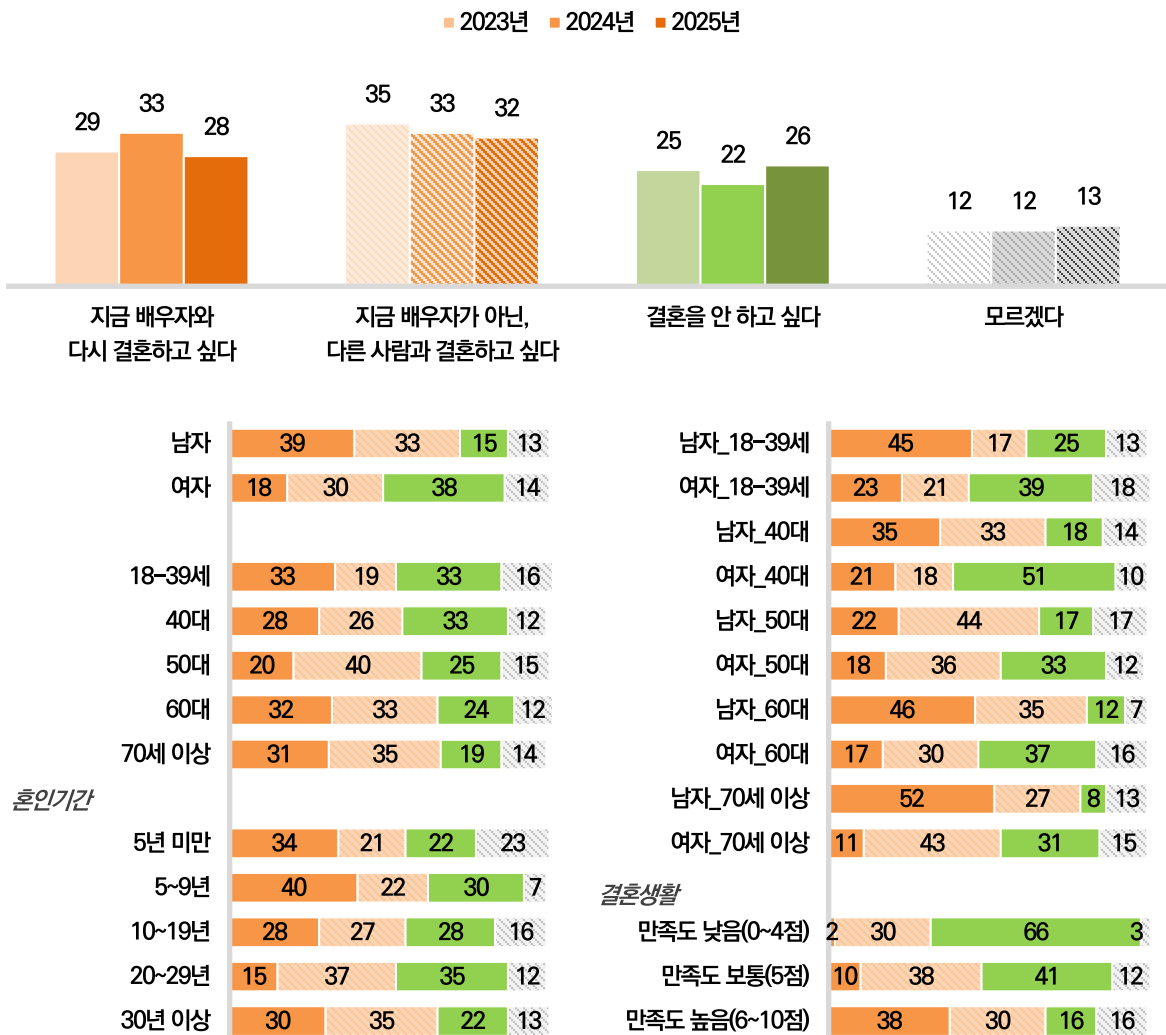
성별 차이는 뚜렷하다. 기혼 남성 중에서는 39%가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을 하고 싶지만, 여성은 절반인 18%에 그친다. 기혼 여성 중에서는 38%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 자체를 안 하고 싶다고 답해, 남성(15%)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남녀간 의견 차이가 커진다. 60대와 70대 남성은 각각 46%, 52%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고 밝힌 반면, 같은 연령대의 여성은 각각 17%, 11%만이 지금의 배우자와 결혼하고 싶다고 밝혔다. 앞서 40대 이후 남성의 결혼생활 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여성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이 확인됐는데, 이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젊은 기혼 여성의 거부감도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다. 2·30대 기혼 여성 중에서는 39%가, 40대 기혼 여성 중에서는 51%가 다시 태어나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2·30대 기혼 남성 중에서는 45%가, 40대 기혼 남성 중에서는 35%가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다고 답한 것과 극명하게 대조된다.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28%, 다른 사람과 결혼 32%, 결혼 안 하고 싶다 26%
기혼 남성 중 39%는 ‘지금 배우자와 다시 결혼’, 기혼 여성은 38%가 ‘결혼 안 하고 싶다’

(단위 : %)



질문: 만약 다시 태어나 결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응답자 수: 현재 배우자가 있는 사람 575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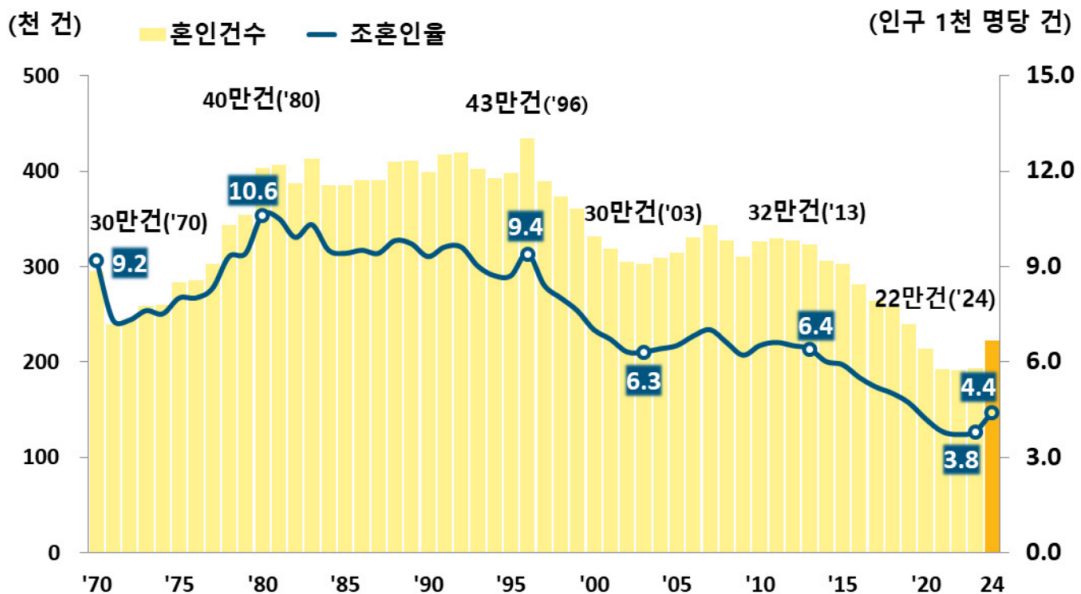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3. 21. ~ 24.

3 혼인 감소에 대한 인식

**혼인 감소는 ‘심각한 문제다’ 55%, 작년 대비 4%포인트 감소
연령대 높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지난해 대비 14.8%, 2만 9천 건 증가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이는 지난 2010년~2011년 이후 처음이다.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4.4건으로 전년 대비 0.6건이 증가했다.

**2024년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 지난해 대비 14.8%증가
조혼인율도 4.4건으로 지난해 대비 0.6건 증가**



출처: 통계청 2024년 혼인·이혼통계 보도자료(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4&act=view&list_no=435601)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혼인건수 증가가 영향을 주었을까? 2010년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혼인율이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혼인건수와 혼인율에 대해 ‘심각한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55%로 지난해(59%) 대비 4%포인트, 2023년(63%) 대비 8%포인트 줄었다. 문제이지는 하나, 심각한 건 아니라는 사람은 28%로 전년 대비 4%포인트 늘었고,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은 본 조사를 시작한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10%)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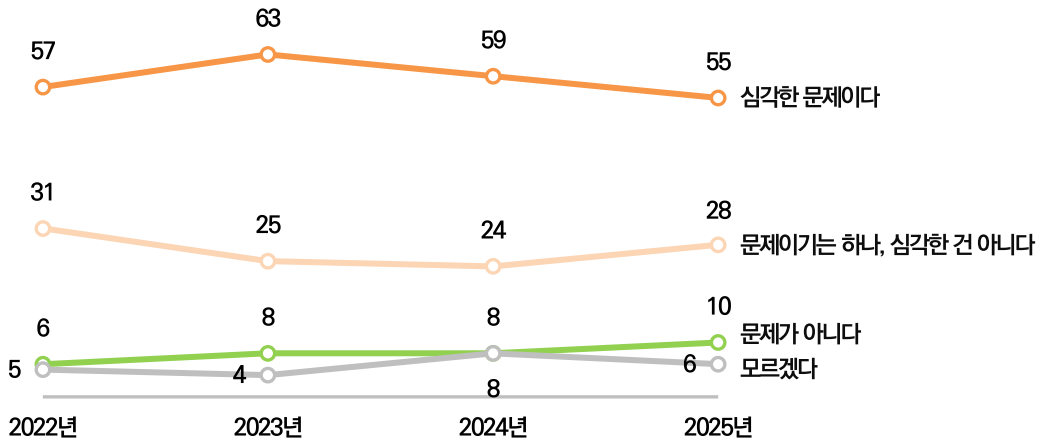
여성(46%)보다는 남성(65%)이 혼인건수와 혼인율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며, 18~29세(41%)와 30대(44%)보다는 60대(66%)와 70세 이상(68%)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 30대에서는 23%가 우리나라 혼인건수가 혼인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여 다른 연령대 대비 높고, 4·50대 여성 5명 중 2명 정도는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혼인건수의 감소, 심각한 문제이다 55%, 문제이지만 심각한 건 아니다 28%

남성, 고령층일수록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 높은 반면,

4·50대 여성 5명 중 2명은 ‘문제지만 심각한 건 아니’라고 인식

(단위 : %)



2025년 조사	사례수 (명)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이지만, 심각한 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모르 겠다
전체	(1,000)	55	28	10	6
성별					
남자	(493)	65	20	9	7
여자	(507)	46	37	11	6
연령					
18~29세	(155)	41	34	13	13
30대	(149)	44	24	23	9
40대	(175)	58	28	8	7
50대	(195)	53	32	10	5
60대	(177)	66	27	5	1
70세 이상	(149)	68	25	4	2
혼인여부					
미혼	(308)	44	29	15	12
배우자 있음	(575)	58	29	8	4
사별, 이혼	(117)	69	24	6	1
자녀유무					
있음	(626)	61	29	7	4
없음	(374)	47	28	15	11

2025년 조사	사례수 (명)	심각한 문제이다	문제이지만, 심각한 건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모르 겠다
전체	(1,000)	55	28	10	6
성별 x 연령					
남자_18~29세	(81)	55	31	5	9
여자_18~29세	(74)	25	37	21	17
남자_30대	(77)	55	15	22	9
여자_30대	(72)	33	33	24	10
남자_40대	(88)	72	17	2	9
여자_40대	(87)	44	39	13	4
남자_50대	(98)	63	20	11	6
여자_50대	(97)	43	43	9	5
남자_60대	(87)	74	19	6	1
여자_60대	(90)	58	36	4	2
남자_70세 이상	(62)	69	19	6	6
여자_70세 이상	(87)	68	30	2	0

질문: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혼인건수는 22만 2천 건, 조혼인율(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은 4.4건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혼인건수 감소 이유, 작년에 이어 '결혼비용 증가'와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 여성은 남성보다 인식·가치관의 변화를 혼인 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 강해

혼인건수가 2년 연속 증가하기는 했으나, 이 추세가 이어질지는 계속해서 지켜 볼 필요가 있다. 올해 혼인건수가 4년만에 20만 건을 넘어서긴 했으나, 10년 전인 2014년(30만 5천여 건)에 비하면 여전히 8만 건이 적은 상황이다.

사람들이 인식하는 혼인 감소의 주요 원인은 '내집마련 등 결혼비용의 증가(55%, 1+2+3순위 기준)'와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44%)'이다. 이어서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34%)', '경제적 자립 늦어짐(31%)',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27%)' 등이 뒤를 잇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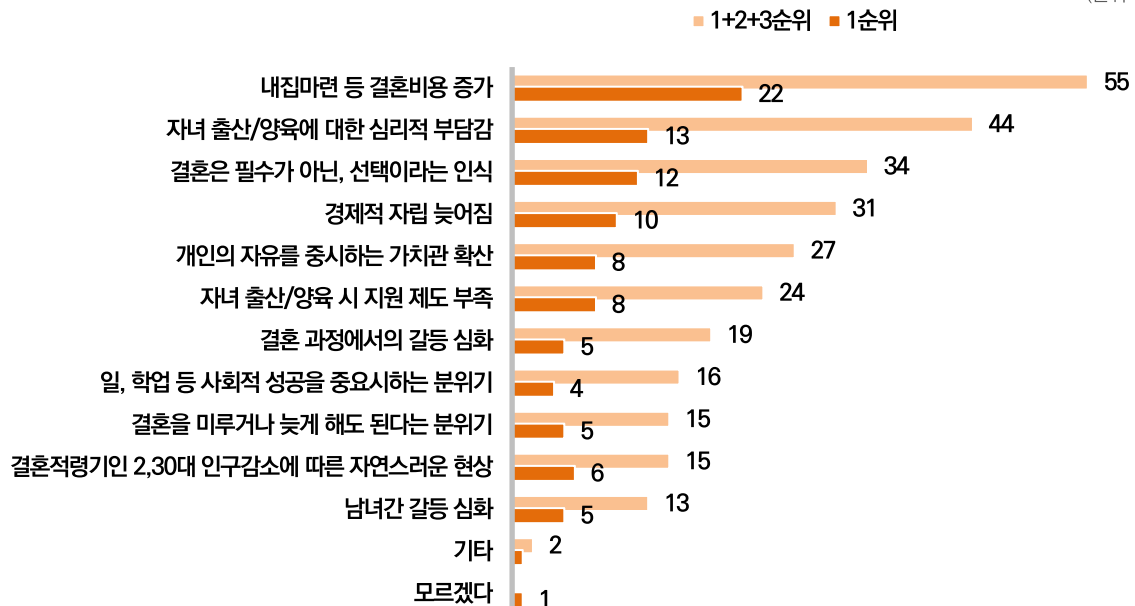
결혼비용의 증가,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남녀 모두가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혼인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여기에 더해 여성은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39%, 남성 28%)',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확산(31%, 남성 24%)'을 언급한 사람이 남성 대비 많다. 반면 남성은 '자녀 출산/양육 시 지원 제도 부족'을 주된 이유로 언급한 사람(28%)이 여성(20%)대비 상대적으로 많다. 남성은 경제적·제도적 미비함을, 여성은 근본적인 가치관의 변화를 혼인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감은 30대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문제지만, 오히려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이 문제를 혼인 감소의 원인으로 좀 더 많이 언급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30대는 오히려 결혼은 선택이라는 인식(34%)이나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확산(30%)을 주된 혼인 감소의 이유로 꼽는다.

또한 18~29세의 25%, 30대의 21%는 남녀간 갈등 심화도 혼인 감소의 원인으로 언급해, 40대 이상(4~15%)과 차이를 보인다. 남녀가 체감하는 성별 갈등이 실제 결혼 기피로도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혼인건수 감소 이유, 작년에 이어 '결혼비용 증가'와 '자녀 출산·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지적해

(단위 : %)



질문: 2024년 혼인건수는 2023년 대비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 혼인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여성은 남성보다 인식·가치관의 변화를 혼인 감소의 원인으로 보는 경향 강해
자녀 출산/양육 부담감은 당사자인 30대보다 60대 이상에서 혼인 감소의 주 원인으로 더 많이 언급

(단위 : %)

1+2+3 순위 응답		사례수 (명)	내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자녀 출산/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 이라는 인식	경제적 자립 늦어짐	개인의 자유를 중시 하는 가치관 확산	자녀 출산/ 양육 시 지원 제도 부족	결혼 과정 에서의 갈등 심화	일· 학업 등 사회적 성공을 중요시 하는 분위기	결혼을 미루 거나 늦게 해도 된다는 분위기	결혼 적령기 인 2,30대 인구 감소에 따른 자연 스러운 현상	남녀간 갈등 심화	기타	모르 겠다
전체		(1,000)	55	44	34	31	27	24	19	16	15	15	13	2	1
성별															
남자 (493)			55	47	28	30	24	28	17	15	13	17	16	2	1
여자 (507)			55	41	39	32	31	20	22	18	17	12	10	1	0
연령															
18-29세 (155)			43	36	32	24	22	24	22	21	15	22	25	3	1
30대 (149)			57	30	34	24	30	29	23	17	10	17	21	3	2
40대 (175)			58	42	34	29	30	23	22	11	11	14	15	1	2
50대 (195)			54	45	37	31	27	23	20	15	18	12	11	1	1
60대 (177)			56	50	32	41	33	25	11	18	18	11	4	0	0
70세 이상 (149)			61	57	32	34	20	19	20	17	18	14	6	2	0
성별×연령															
남자_18-29세 (81)			40	34	22	25	26	26	18	23	9	25	28	4	2
여자_18-29세 (74)			46	38	44	23	17	21	25	18	21	19	22	3	0
남자_30대 (77)			56	28	32	27	25	24	25	16	7	21	28	6	2
여자_30대 (72)			57	33	36	21	35	34	21	17	13	12	14	0	1
남자_40대 (88)			57	41	27	29	22	30	18	7	12	17	21	1	3
여자_40대 (87)			60	43	41	30	38	15	26	16	11	11	8	0	0
남자_50대 (98)			55	51	30	27	21	27	20	16	20	14	13	1	0
여자_50대 (97)			52	39	44	34	34	19	19	14	16	10	8	1	1
남자_60대 (87)			57	62	27	39	24	34	10	12	17	11	3	0	0
여자_60대 (90)			55	38	37	44	41	17	12	23	19	10	4	0	0
남자_70세 이상 (62)			64	65	31	32	25	23	10	15	12	15	4	0	0
여자_70세 이상 (87)			59	51	32	34	17	17	26	19	21	13	7	3	0
혼인 여부															
미혼 (308)			48	35	35	24	26	24	24	16	13	17	23	2	2
배우자 있음 (575)			59	45	31	35	29	24	17	16	16	14	9	1	0
사별·이혼 (117)			53	57	41	28	23	23	21	20	12	13	9	0	0

질문: 2024년 혼인건수는 2023년 대비 증가했으나, 2012년 이후 혼인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혼인건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복수응답(최대 3개까지 선택)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3. 21. ~ 24.

혼인건수가 2년 연속 증가했지만, 미혼자의 결혼 의향은 오히려 감소했다. 현재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고 싶다는 기혼자는 28%에 불과하며, 특히 기혼 여성의 38%는 다시 태어나면 아예 결혼하지 않겠다고 답해 남성(15%)과 큰 격차를 보였다.

결혼비용 증가와 출산·양육 부담이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또한 혼인 감소를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을 기대하면서도 결혼 후 출산을 의무로 보지 않는 미혼자가 56%에 달하는 등, 결혼과 출산에 대한 전통적 인식 또한 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 과제인 상황에서 혼인건수 증가는 긍정적 신호이다. 다만 최근 2년간의 혼인건수 증가가 일시적인 반등인지, 지속적인 추세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특히 젊은 여성층의 결혼 기피 현상과 기혼 여성의 낮은 결혼 만족도에 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2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4년 1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8,923명, 조사참여 1,548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5%, 참여대비 64.6%)
조사일시	• 2025년 3월 21일 ~ 3월 24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